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8월 20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물가 제외한 실질임금, 5년째 하락세
- 2) 옐런, 금리인상 고민은 '750만 비정규직'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아르헨티나, 우회적 채무 상환 계획 발표
- 2) 영국중앙은행(BOE), 8월 중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 2명 금리인상 주장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애플 주가 100달러 돌파, 주식분할 감안하면 사상최고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물가 제외한 실질임금, 5년째 하락세

- 지난 19일 마켓워치는 미국의 시간당 명목임금은 24.45달러로 지난 2009년 6월 이후 10% 가까이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0.3% 하락했다고 발표
- 전문가들은 5년째 실질임금 하락이 미국의 가계소득과 소비여력 감퇴, 경제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
 - 특히, 소득 감소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정상 수준의 60%에 불과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
- 한편, 미국 경제는 통상 연평균 3.3%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약 2%로 감소한 바 있음

2) 옐런, 금리인상 고민은 '750만 비정규직'

- 지난 18일 블룸버그통신은 옐런 연준(FRB) 의장이 실업률 감소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, 오는 22일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모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
 - 옐런은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수 외에 장기 실업자 수와 구직 포기자 수, 기업 해고율과 취업률 등 총 12개 이상 고용지표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 - 그가 이번 미팅에서 노동시장 문제를 집중 지적할 경우, 연준(Fed)의 금리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됨
- 옐런 총재는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비상근직을 유지하고 있는 700만명 이상이 누락, 노동시장에서 이런 수치는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음

- 상근 근로자 수는 현재 엘런 의장이 주시하는 노동시장 건전성을 확인할 지표
 - 노동부가 집계하는 비상근직과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2.2%를 초과, 이는 금융 위기 전을 상회하는 결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됨
- 한편, 2007년 미 경제의 침체가 당시 약 462만명이 경제적 이유로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바 있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아르헨티나, 우회적 채무 상환 계획 발표

-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해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국내법에 따라 발행하는 새 채권으로 교환해 미국 법원 판결을 피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
 - 이는 지난달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막아 아르헨티나 정부가 13년 만에 디폴트(채무불이행)에 빠지게 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됨
-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채무재편 후 신탁관리은행인 미국뱅크오브뉴욕멜론은행이 아닌 아르헨티나 은행이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힘
- 한편,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라 이자 지급을 할 수 없어 디폴트에 빠진 바 있음
 - 미국 헤지펀드 2곳이 채무 조정을 거부하고 전액 변제를 요구해 문제 해결 전까지 아르헨티나는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

2) 영국중앙은행(BOE), 8월 중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 2명 금리인상 주장

- 지난 20일 영국중앙은행이 공개한 8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, 마틴 윌, 이안 맥카퍼티 두 위원은 지난 6~7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0.5%의 기준금리를 0.25%p 올려야한다고 주장
 -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, 8월 기준금리는 0.5%로 결정됨
- 맥카퍼티 위원은 당시 회의서 경제적 상황이 기준금리를 즉시 인상해도 될 만큼 충분한 조건이었으며, 통화정책위원회는 잠재적인 고용시장 압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
- 반면, 카니 총재는 긴축 정책을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며 다수의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분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애플 주가 100달러 돌파, 주식분할 감안하면 사상최고

- 지난 19일 애플 주가가 ‘아이폰6’ 등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주식분할 후 급년 25%, 6월 중 주식분할 뒤로는 6% 넘게 급등하며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
 - 애플 주가는 이날 오후 주당 100.68달러까지 상승, 막판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며 100.53달러에 마감
- 전문가들은 애플 주가 100달러 돌파는 팀 쿡 최고경영자(CEO)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폰6 등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
- 한편, 애플 주가는 2012년 9월 19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100.3달러(주식분할 조정치)를 상회한 바 있음
 - 애플은 앞서 지난 6월 중 소액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할 목적 등으로 1대 7 주식 분할을 단행한 바 있음